

새 정부에 바란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안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 기간엔 1.2~1.7%이고, 2031~2040 기간엔 0.4%~1.1%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데에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인해 낮고 총요소생산성 또한 낮음이 지적된다. 흑자는 이를 두고 한국경제가 ‘피크코리아’ 상태에 돌입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새 정부는 노동생산성과 더불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경제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AI 오픈사의 Chat 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디지털기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추진됐다. 그러

나 오픈 AI사의 Chat GPT가 대중에게 공개된 2022년 이후엔 AX가 거슬릴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제 AI는 제조,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단순히 생산성 제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의 체질과 구조 재편 등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각인되고 있다. 올 1월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글로벌 AI 기업지형도 자료에서, 국회는 글로벌 AI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여기에 미국은 59개 기업, 중국은 10개 기업, 영국 7개, 프랑스 5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에는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은 AI 활성화 공약에서 먼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조기개정,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AI를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AI 투자 100조원의 국부펀드 등도 제안했다. 이들 공약이 국가 정책과제로 제대로 추진되는 경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복원을 통해 피크코리아의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

20년간 벤처생태계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필자가 새정부의 AX 추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 기간 내 결실을 보려는 조급증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인적 인프라로서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공급되는 체계를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가 이 공계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갖추어야만 한다. 생태계 조성으로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R&D 과제에 대한 결과물 제출에서 연구실패가 인정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여주기식 정책펀드의 지양이다. 역대 노무현정부에서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번 정권별로 정책 펀드인 선박펀드, 유전펀드, 통일펀드, 뉴딜펀드, 밸류업펀드가 제시됐다. 이번에도 AX펀드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쇼 윈도식 펀드도입보다는 벤처캐피탈체계의 활용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끝으로, AX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규제의 원칙과 방향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기업의 사업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인이 좋아하는 주식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지난달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들인 주식은 서울 인터넷 그룹(CRCL)이다. 지난 6월 5일 상장했지만, 서학개미들의 상반기 순매수 상위 4위 종목에 등극했다. 서클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순수 스테이블 코인 기업으로 주목 받으면서 12거래일 만에 공모가 263.45% 뛰었고, 이후 5거래일 만에 31.51% 하락했다. 다만 타이밍은 다소 아쉬웠다. 서학개미들은 서클이 조정받기 시작하자 더 열심히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서학개미들에게 서클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흥미

로운 투자처인 것이다.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난히 ‘균중심리의 역설’이 잘 먹히는 요즈음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들어맞는 말이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비단 서클뿐만 아니라 한 번 불이 붙으면 고점에서도 쉽게 진입했고, 저점에서도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보였다. 눈앞의 급등 차트를 두고 ‘나만 못 먹는 이익’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막연한 추세에 대한 믿음, 언제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복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불나방 흐름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테슬라’라고 생각된다. 테슬라는 주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서학개미들에게 ‘존버’(끝까지 버틴다는 뜻의 은어)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심어 줬다.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어쩌면 당연하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2023년에는 첫 번째로, 2024년에는 두 번째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첫 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특히 올해는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도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셰어즈’다. 지난해 7월, 테슬라의 주가는 저점에서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대한 순매수 성향을 일관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테슬라의 주가 등락과 관계 없이 매수 태도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엔 결코 공짜 점심이 없다. 손해 본 누군가의 피눈물이 타인의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제는 급등주가 아닌 실적주를 직접 찾아나설 때다. ‘한 방’을 기대할수록 제되는 빈틈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7월 4일 (음 6월 10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 48년생 더도 말고 오늘날 같으면 좋겠다. 60년생 급하게 서둘러서 후회가 막급이다. 72년생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독해력이 뛰어나다던데. 84년생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며 친구를 만난다.

 소

37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49년생 자녀와 불화는 대화로 풀려. 61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 73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85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창업은 다음 날로 해아만.

 호랑이

38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50년생 두루 베풀면 일이 순조롭게 해결. 62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74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는 천천히 챙겨라. 86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인가.

 토끼

39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 51년생 직장에 변동수가 있으니 마음을 잡을 때. 63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능력도 최고조이라 행복. 75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날. 87년생 아날로그에 끌리는 음악 감상을.

 양

40년생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자. 52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 64년생 조직의 뜻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기보다는. 76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가 성공적. 88년생 건강검진 진료는 늦추지 말고 바로 받아야 할 것.

 뱀

41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53년생 구슬수를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65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77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선풍기 해결된다. 89년생 모든 일은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말

42년생 이성 유희이 많은 날이니 잘못하면 망신 수. 54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하라. 66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78년생 외출을 하면서 행운이 따른다. 90년생 여행이나 산길을 하기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고양이

43년생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좌우된다는데. 55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 이루어낸다. 67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79년생 막혔던 자금이 풀리기 시작. 91년생 제사를 지내고 나니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지혜를 얻는다.

 원숭이

44년생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56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을 본다. 68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신중. 80년생 능력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92년생 회의에서 객관성은 떨어져도 나서지 말도록.

 닭

45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57년생 양보다 질을 따져보고 결정. 69년생 지출이 많으니 재활동으로 아껴라. 81년생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면 활동을 하도록. 93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돼지

46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물이 따라주지 않는다. 58년생 공과 사를 올바르게 구분. 70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방걸을 가니, 봐 주는 사람이 없다. 82년생 학문에는 불충분한 학설도 있게 마련이니. 94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돼지

47년생 이혼이 결국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59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1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83년생 지금부터라도 저축으로 검박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95년생 오전에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있다.

김상회의四季

자기소개서 잘 쓰려면

대학입시 때나 취업 원서를 쓸 때 작성하는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가 있다. 자기소개서는 특기 사항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남들보다 특출한 능력을 보여줘야 유리하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게 쉽지 않다.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찾아왔었다. 취업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답답해서 왔다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주를 짚어보고 학교 다니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봤다. 애기 속에서 분명한 특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특기는 리더십이었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의 사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겁재와 양인살이다. 겁재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무언가 일을 추진하는 힘이 강하고 필요할 때는 꼭 부러지게 결단할 줄 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도 특징이다. 양인羊刀살은 칼날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강한 성격에 웬만한 일에는 겁내지 않는 담대함이 있다. 에너지가 넘쳐서 위험을 정면으로 떠안기도 한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힘을 갖는 자리나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앞서서 끌어가려고 한다.

이런 리더십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좋은 특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더십이 있다고 좋은 건만은 아니니 어떤 능력이란 활용하기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겁재 사주는 성공을 위해 도박 같은 승부를 걸다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순식간에 날리곤 한다. 양인살은 남들 위에 서려고 하다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 남다른 능력을 한두 가지는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차이가 있을 땐 사주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0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4	7	2
	2	5		3	8
9					1
		2			3
7	1				5
		7		4	5
		6		3	
	5		8	1	

8		5	4		2	9	3
			3	2		4	
				9		5	8
7		4			2		
							1
			9			3	
	7	9		8			
		2		6	9		
8	5	6		3	4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7	1	2	8	6	9	2
8	2	6	8	2	9	9	7	1
2	1	9	9	7	6	2	8	8
9	9	2	6	8	8	7	1	2
6	8	8	7	1	2	9	9	5
1	7	2	9	9	2	8	8	6
2	6	1	8	8	9	9	2	7
7	8	2	6	1	8	2	9	9
8	2	9	2	9	7	1	6	8